



"공정보도·권익보호 최선"...제31대 노조 출범 박성민 신임 위원장 "공정보도 실현에 연합 사활 걸렸다"



언론계 안팎에서 공정보도 수호와 언론 노동자 권익보호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미디어 그룹 13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는 노조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이 열렸다.

박성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보도 수호와 조합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보도 실현에 연합뉴스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편집권 독립도 기필코 사수하고 7월로 예정된 편집총국장 중간평가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집, 경영, 인사권에 대한 견제 역시 게을리하지 않겠다"면서 "(공정보도 및 편집권 독립과 직결된) 차기 경영진 선임 과정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조합원 권익 보호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정해진 시간 밖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 창립후 처음으로 2년에 걸쳐 임기를 수행한 홍제성 전임 위원장은 "2년 전 출마의 변과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것을 일부는 지켰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많아 아쉬움이 크다. (경영진은) 31대 집행부를 존중하고 노

사 화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간소하게 치러진 이날 출범식에는 오정훈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조성부 사장, 이병로 부사장, 최병국 연합인포맥스 사장, 박진형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사장은 새 노조 출범을 축하하면서 "올해는 연합뉴스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려움도 노사가 단합하고 잘 헤쳐나간다면 무난히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언론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고 일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면서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상식을 지키면서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걷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란 점을 명심하겠다고면서 조합원과 언론노동자들에게 31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31대 노조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31대 노조 출범과 함께 조합원 권익 보호에 앞장설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박성민 위원장과 함께 김종환 조합원(연합뉴스TV 파견)과 김동철 조합원(전북취재본부)이 각각 본사와 지역본부 대표 부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새 전임 사무처장과 정책기획실장에는 황철환 조합원(국제뉴스부)·김동욱 조합원(상품개발팀)이 선임됐으며, 총무부장, 교육부장, 쟁의 부장은 양진규 조합원(출판부)·민경락 조합원(통통TV부)·권영진 조합원(AI팀)이 각각 맡게 됐다.

조직부장, 조사부장, 복지부장에는 설승은 조합원(정치부)·성서호 조합원(경제부)·전명훈 조합원(사회부)이 선임됐다. 홍보부장과 여성부장, 지방부장은 오예진 조합원(탐사보도팀)·정빛나 조합원(한반도부)·고성식 조합원(제주취재본부)이 맡는다.

조합원 지방발령은 “모범적인 인사사례”, 조복래 전 상무 공정보도훼손 혐의로 징계받은 사원들과 회사 소송 진행중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노황 전 사장의 제4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복래 전 상무가 지난 2015년 공병설 조합원을 지방으로 발령한 것은 “모범적인 인사사례”라고 주장했다. 조 전 상무는 또 이 인사는 노조활동을 문제삼은 보복성 인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노황 경영진은 지난 2015년 5월에 실시한 인사에서 공병설 조합원과 이주영 조합원을 제천과 대전으로 발령을 냈다. 지난 2012년 파업당시 연합뉴스지 부장을 맡았던 공 조합원과 전 노조 공정보도 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 조합원을 아무런 혐의도 없이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상무는 두 조합원의 지방발령은 지역에서 제작하는 기사에 문제점이 많다는 고객사의 지적에 따라 지역뉴스 강화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지역발령에 반발은 없었으며 두 조합의 지역발령은 노조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 조합원은 지역기사에 기여한 바가 커서 8차레나 포상을 받기도 했다고 추켜세웠다. 재판장은 조 전 상무의 증언을 중간에 중단시키고 증인의 발언은 박 전 사장을 너무 옹호하는 발언이며 말이 많으면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편찬을 주기도 했다.

박노황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2019년 7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2017년 10월 박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1년 9개월만이었다. 2019년 9월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박 전 사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2019년 11월 5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양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만 주고 받은 채 끝났다. 2019년 12월 19일 열린 세 번째 재판에는 공 조합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박 전 사장의 제4차 재판은 코로나19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난 3월 26일 열렸다.이 공판에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조 전 상무의 증언만 있었고 검찰은 증인반대심문을 하지 못하고 재판이 중단됐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오후 4시로 잡혀 있으며 박 전 사장측 증인으로 김성수 전 인사부장, 황대일 전 전국사회에디터가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회사간부 대상 워크숍에서 노조를 혐오하고 위협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원의 신분을 위협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지방발령 등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8월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제시된 간부사원 임금체계 변경건과 관련해 박 사장은 인사팀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자기는 결재만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의 재판외에 지난 해 회사로부터 공정보도 훼손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황정욱 전 정치에디터, 황대일 전 전국사회에디터,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 등 3명에 대한 행정소송도 2019년 12월 19일에 이어 4월 2일에 열렸다. 1심 판결은 5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2018년 공정보도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3~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권고사직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건도 재판부만 정해졌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직무대행은 ▲공정보도 의무 위반 ▲회사명에 실추 등의 이유로 2018년 6월 회사가 퇴사를 권고해 같은 달 회사를 떠났다.

<알려드립니다>

노동절·노조 창립 32주년 기념 상품권 지급

5월 1일 노동절과 노조 창립 32주년, 새 집행부 출범 등을 기념해 조합원들께 상품권(신세계·1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본사 각 부서 대의원께서는 내달 6일(수)부터 13층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 취재본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특파원과 해외연수자에게는 10만원씩을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

[성명] 연합뉴스TV 재승인 대응, 보도 공정성 담보가 우선돼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연합뉴스TV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나란히 보도 공정성을 지키고 공적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통위는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채널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고 대표이사 겸직 금지와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TV로 파견한 사원들의 복귀 등을 권고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가의 정보주권 수호 등 공적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TV의 산파역할을 한 연합뉴스가 방통위의 채널 재승인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더불어 보도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서도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이 보도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권력·자본권력에 휘둘리거나 기생하지 않고 국민과 독자, 시청

자를 위해 불편부당한 보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지부는 연합뉴스TV와의 상생과 협력이 회사의 미래는 물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회사가 공정성·공익성을 지키려 하지 않고 사태를 미봉책이나 근시안적 대응으로 수습하려 한다면 연합뉴스지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노력은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고 시의적절하게 전달됨으로써 불필요한 동요와 불안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회사는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 지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30대 집행부 2년간의 활동기록

2018년 4월 출범한 제30대 집행부가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 출발하는 31대 집행부에 바통을 넘깁니다. 공정보도 수호와 조합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차기 집행부가 맡아 채워줄 것으로 믿으며 30대 집행부가 달려온 활동기록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 노동시간 단축제

출범 직후 30대 집행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이었습니다.

총 20여차례의 협상 끝에 노사는 2018년 8월 8일 2주단위 탄력근로제 및 시급에 기반한 수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 40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약 1년반 가량 이 제도를 운영하다, 무보상 초과노동(그림자 노동)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중입니다.

◆ 임단협 협상

30대 집행부는 회사와 협상을 통해 2번의 임금협약과 1번의 단체협약 타결. 2018년 임협은 기본급 인상 2%, 2019년은 기본급 1.9% 인상이며 2년 연속으로 소정의 격려금도 지급됐음. 단체협약은 모성보호 제도 및 경조휴가 일부 확대, 입원 위로금, 교육훈련비 인상 등이 골자임.

◆ 무더기 승호누락 복원 및 징계취소

30대 집행부는 출범 후 전임 사장 시절 무더기로 승호제한 조치를 받은 사원들 호봉의 일괄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회사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11월 정기인사 때 승호 누락된 사원 30여명에 대한 호봉을 일괄적으로 복원함. 노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이뤄진 김성진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켰음. 2017년 상반기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과거 3그룹 및 6급사원들의 승진인사도 이뤄짐.

◆ 연호봉 격차해소

제29대 집행부가 회사와 체결한 2017년 부속합의에 따라 노사는 순차적으로 연호봉격차를 완전히 해소함. 2018년 호봉사원의 92%였던 연봉사원의 임금은 2019년 96%로 인상됐고, 2020년 4월 1일을 기해 100%로 맞춰졌음.

◆ 임금피크제 개선

전임 경영진 시절 도입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는 2019년 7월 노사 잠정합의안 가결로 개선됨, 만 55세 이후 임금지급률 개선, 근속 29년시 임금피크제 적용 규정 폐지, 만 59세 안식년 선택시 임금 50% 지급, 부장대우 이하 사원 임금피크제 적용후 승진시 즉시 부장급 이상 임금지급률 적용 등이 골자임.

◆ 공보위 · 편집위 활동

30대 집행부는 공정보도 수호와 감시자(위치독)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공보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음. 조준형, 황희경, 구정모 공보위 간사가 순차적으로 공보위 회의를 이끌었고, 편집위를 통해 공정보도의 위치독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음.

◆ 신입사원 노조 교육

지난 2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신입사원 노조 교육을 실시함. 103일간의 파업, 사장퇴진 투쟁 등 노조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노조의 필요성, 공정보도의 중요성, 언론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예비조합원들의 각오와 포부를 듣는 의미있는 기획이었음.

◆ 노사협의회 복원

30대 집행부는 전임 경영진 시절 공전 중이던 노사협의회를 부활해 정착시켰음. 2018년 3분기부터 시작된 노사협의회는 30대 집행부 임기 중 총 7번 진행됨.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참관

비공개로 진행돼 왔던 뉴스통신진흥회 정기이사의회의 공개를 요구해 관철시켰음. 공개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참석해 때때로 발언권을 얻어 노조의 입장을 밝혔고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음.

◆ 조합원 선물

30대 집행부는 소중한 조합비를 모아주시는 조합원들께 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음. 창립기념일 및 명절 상품권 지급, 영화티켓, 마스크 지급 등의 활동을 펼쳤고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들을 찾아 치료비와 위로금도 지급함. 이밖에 특별취재팀 지원, 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 편집기자협회 등의 행사 지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활동도 펼쳤음.

◆ 지역 및 부서순회

2018년 5월 전북취재본부를 시작으로 13개 지역본부와 세종시까지 14번의 지역순회를 약 2달 만에 마무리함. 본사에서 부서별 회식자리를 마련해 약 1년간 50번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고충을 듣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음. 마무리 인사차 연초에 2번째 지역순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조합원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 콘텐츠 경쟁력 강화노력

작년 국민청원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함. 작년 가을에는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초점집단 인터뷰(FGI)도 실시함.

◆ 투표, 설문조사 및 성명, 노보 발간

단협과 노조 규약에 따라 각종 투표와 설문조사도 수차례 실시함. 총국장 임명동의 투표 및 중간평가, 경영진 중간평가,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임단협 및 노사합의서 추진 투표 등을 통해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13번의 성명을 통해 공정보도와 적폐청산의 의지 등을 밝혔고, 11번의 노보 발간으로 조합 활동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38기 수습기자 대상 노조 교육·간담회 소감

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38기 수습기자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입기자들은 연합뉴스 노조의 공정보도 투쟁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언론노동자이자 예비조합원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하는 수습기자들의 소감이다.

수습기자 계승현

노동조합은 노동 처우 개선에만 관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 환경 개선만큼이나 공정보도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배우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노조 선배들 덕에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자’라는 꿈에 더욱 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의 연합뉴스 파업 영상을 볼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제게 버팀목이 돼 주듯, 저 또한 사회적 약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수습기자 권희원

‘노조의 역사를 빼고 연합뉴스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 간담회 후 든 생각이었습니다. 노조의 역사를 배우며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배들께서 투쟁으로 바로 세운 공정성의 가치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습기자 김유아

‘기자’라는 노동자는 어떤 모습일까. 월급날을 애통하게 기다리는 다른 직군 노동자와 크게 다를 바 없겠지요. 그럼에도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날 배웠습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이자 목표가 ‘공정’,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노동 가치를 위해 연합뉴스 노조가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감이 더욱 빛난다고 느꼈습니다. 공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자라는 노동자상()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노조께 감사 드립니다.



수습기자 김정진

공정보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네 글자를 지키기 위해 단결했던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고 난 후입니다. 올바른 언론관을 가진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벅차오르면서도 언론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의 연합뉴스를 만들어 주신 선배들과 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수습기자 문다영

요즘 취준생들은 노조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습기자 박원희

“회사는 공정보도의 실현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노조의 목적이 다른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애쓴 선배들의 분투를 잊지 않고 ‘자유언론실천’에 앞장설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습기자 오주현

‘공영언론’의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이런 가치가 훼손되기 쉬운 곳이 또한 공영언론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선배들이 어렵게 지켜 오신 ‘공정 보도’의 가치를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수습기자 윤우성

우리는 모두 노동자입니다. 세간의 고정관념처럼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만 노동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를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또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는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등한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의 든든한 친구 노동조합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자 장보인

노조 교육을 통해 연합뉴스 합격 통보를 받고 제가 느꼈던 기쁨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걸고 공정보도의 가치를 지켜내신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연합뉴스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습기자 홍준석

노조 교육을 들으면서 시가 한 편 떠올라 써서 바칩니다.
本筆利於刃, 본디, 펜은 칼보다 날카롭지만
鏤沐雨於權, 녹슬었으니, 권세에 젖었기 때문이다.
集鈍矛破盾, 하지만 모이면, 무딘 창도 방패를 깨고
偕雖衣濡暖, 함께하면 비록 옷이 젖어도 따뜻하다.



수습기자 김나영

참 든든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기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기자로서 공정보도를 할 권리 또한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지켜온 공정보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주 남짓이지만 연합뉴스로의 출근길이 두렵지 않고 집에 가는 길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습기자 채운환

교육을 통해 연합뉴스 노조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보도의 공정성과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조 활동들을 영상과 성명서로 접하면서 선배들이 단결하여 지켜온 가치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공정보도의 책임을 더 고민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수습기자 김솔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력은 언제 부패할지 모릅니다. 언론 권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가진 공적 영향력이 건강하게 활용되기 위해 노조의 감시견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조 교육을 통해 이 점을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수습기자 박성제

언론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듯, 노조는 연합뉴스 그리고 공정보도를 위해 힘써온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합뉴스가 바른 길로 나아갔을 때 칭찬을 하고, 엇나갔을 때 채찍을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저 역시 노조와 함께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수습기자 천경환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다. 나의 노력이 회사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지 더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노조 교육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이 아닌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었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